

해방기 황순원 소설의 현실 대응력

—『별과 같이 살다』를 중심으로—

전홍남* · 소형수**

차례

1. 문제제기
2. 『별과 같이 살다』의 서사성과 담론 방식
 - 2.1. 서사의 양식과 장르의 문제
 - 2.2. 작중인물의 성격화 방식
 - 2.3. 설화성의 공간과 세계관
 - 2.4. 현실을 감싸 안은 상징의 세계
3. 맺음말

1. 문제제기

해방직후 정부수립까지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 휩싸여 있었고, 또한 문학도 그러한 외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정치주도의 격변하는 사회상황 속에서도 문학은 본래의 자기영역을 확보하면서 시대에 대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학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상황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문학론에 대한 규명과 개별 작가의 이념적 성향

*한려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북대학교 석사

의 분석도 중요하다. 동시에 무엇보다도 작품에 대한 섬세한 독서(close reading)를 통해 작품이 보유하고 있는 문학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동시대를 이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비교적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해방기¹⁾의 사회현실을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려 한 황순원의 작품세계에 주목하려 한다. 해방직후 황순원의 단편집 『목님이 마을의 개』²⁾에 수록된 단편을 통해 작가는 해방직후 사회상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³⁾ 따라서 여기서는 황순원의 첫 장편소설이자 해방직후의 사회상을 서사화한 『별과 같이 살다』를 분석함으로써 해방공간의 우리 사회를 어떻게 전망했는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장편소설을 분석함으로써 해방기의 사회상을 어떻게 서사화 했는지를 가늠해 보는데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황순원이 장편을 처음으로 시도함으로써 작가적 방향을 굳혀 나가는 도정의 한 이정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해방 이전에 출발한 작가가 해방을 맞아 그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작품화하였는가 하는 정신적인 가치의 문제도 이 작품과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감안했다.⁴⁾ 대부분 해방기의 사회상을 다룬 작품들이 대부분 단편 위주

-
- 1) 학자에 따라 대상 시기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 대체로 우리 민족이 1945년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시점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문맥에 따라서는 ‘해방직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이며 의미상의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
 - 2) 해방기 황순원의 단편만을 모은 작품집으로 육문사에서 1948년도에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술」, 「두꺼비」, 「집」, 「황소들」 이외에도 「아버지」, 「담배 한대 피울 동안」, 「목님이 마을의 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앞에서 열거한 네 작품이 비교적 해방기의 현실을 예민하게 포착하여 소설화한 경우들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전홍남, 「황순원의 해방직후 소설 一考」, 『어문연구』제47집(2005, 4)참조.
 - 3) 전홍남, 앞의 논문 참조.
 - 4) 황순원의 소설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관심사를 다루었다는 것 외에, 본 연구자는 황순원은-대부분의 작가들이 친일의 죄의식이나 공백기 이후 창작의 어려움을 느꼈음에 비하여-친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또 공백기에도 작품을 썼기에 모국어의 섬세한 질감(質感)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도 주목할 필요를 느낀다. 황순원이 서울과 거리를 둔 평안남도에 있었다는 이유도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이다.

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장편형식으로 다룬 점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해방직후 몇 년간에 발표된 황순원의 작품들은 그의 문학적 생애의 어느 시기보다도 건강성과 문제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그의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조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⁵⁾ 물론 황순원의 경우 그의 문학에 대한 일반적 평가, 즉 '기교주의' '서정성' '순수예의 집착' '전통과의 접맥' 등의 수식어로 논의되는 기존의 평가를 해방기의 작품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하는 단계를 탈피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⁶⁾ 그렇다고 이러한 논의가 황순원의 소설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혹은 사회현실의 반영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식의 부정성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황순원의 작품 가운데 '해방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대한 관심에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충실한 작품분석으로 그 속에 녹아 있는 풍요로운 결을 살피며 동시에 작가의 현실반영 양상을 살필 것이다. 해방기 황순원 소설은 당시 사회상을 독특하게 형상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그의 문학세계를 온당하게 접근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해방기 황순원의 소설문학이 당대 현실의 반영이라는 문학 본래의 명제에 입각해서 해방직후 사회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5) 황순원 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황순원 연구』(문학과 지성사, 1985), 『말과 삶의 자유』(황순원 교회 기념집, 문학과 지성사, 1985)등 황순원 연구에 관한 단행본 외에도 60여편의 평론 그리고 석·박사학위 논문만도 대략 60여편을 상회하고 있다.(2006년 기준).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장현숙, “황순원 연구 논저 발표연대별 총 목록” (『황순원 문학 연구』, 푸른사상, 2005), 490-513쪽 참조.

5) 주목할 만한 논의의 진전은 주로 학위논문의 형식을 띠었다. 여기서는 이른바 '중간과계열 작가들의 작품에 주목한 연구물을 몇 편 소개하는데 그친다. 김성렬, 「광복직후의 좌우 대립기의 문학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이우용, 「해방직후 소설의 인간상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1; 이병순, 「해방기 소설의 이념지향성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등이 주목에 값한다.

2 『별과 같이 살다』의 서사성과 담론 방식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정음사, 1950)는 황순원 작품 세계의 초기와 후기를 이어주는⁷⁾ 과도적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초기의 작품들이 대체로 서정성과 낭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카인의 후예』이후의 작품들은 소외와 고독과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주제로 하거나 현실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황순원의 작품세계에 대한 구체적 규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작품들의 양적인 풍부함과 질적인 변화폭으로 인하여 평자들마다 조금씩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평자들마다 황순원의 문학은 명확히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세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황순원의 문학세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한 평자의 시각도 이런 면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황순원은 <휴머니즘>도 <레알리즘>도 <니힐리즘>도 또 기타 어느 <이즘>도 그 문학 위에 갖다 씌우기에는 그 어느 것이나 모두 부적당하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의 문학에는 이 모든 <이즘>들을 한복 갖다 씌울 수 있다는 말도 된다. <휴머니즘>이나 <레알리즘>이나 그 밖의 여러 <이즘>들을 총화한 그 <이즘>을 그의 문학 위에 갖다 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⁸⁾

위의 지적은 그 범박함에도 불구하고 황순원의 작품세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8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관점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특이한 것은 이태동⁹⁾이나 김치수¹⁰⁾의 글에서 볼

7) 황순원의 초기란 습작기적 특성을 보이는 시작 활동에서부터 『늪』(1940), 『기러기』(1951), 『목넘이 마을의 개』(1948)에 이르는 단편소설집의 간행으로 특징지워진다. 초기의 작품과 『카인의 후예』를 포함한 일련의 장편소설로 대변되는 후기 사이에는 상당한 소설적 변모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곤 한다.

8) 광종원, 『황순원론』, 『문예』, 1953.1 25쪽.

9) 이태동,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황순원론」, 『현대문학』, 1980. 11.

10) 김치수, 「소설의 사회성과 서정성-『별과 같이 살다』를 중심으로」,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 지성사, 1985.

수 있는 것처럼 황순원 문학의 근원을 자연주의와 낭만주의의 융합(자연주의와 상징주의의 혼합) 혹은 순수주의와 현실주의 결합 등 대체로 서로 대립하는 두 경향의 공존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를 이러한 특성과 관련지어 볼 때, 이 작품은 앞에서 지적한 두 경향의 결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인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흔히 매우 개인적 취향의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 황순원의 작품에서 역사적 국면들이 여러 모로 변형되고 결합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다.¹¹⁾

그는 황순원 문학의 두 경향을 개인적 취향과 역사적 관심으로 요약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황순원 소설의 본질 규명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별과 같이 살다』는 그 과도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황순원 문학의 본질을 규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별과 같이 살다』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어, 서사양식을 포함하여 해방공간의 서사적 수용방식과 담론방식을 해명함으로써 그의 작품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하게 될 것이다.

2.1. 서사의 양식과 장르의 문제

『별과 같이 살다』는 시로 출발하여 단편을 써 오던 황순원의 첫 장편소설이다. 잡지에 부분을 독립시켜 단편으로 발표했던 것을 장편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혹은 처음부터 장편으로 썼다가 형편에 따라 단편으로 발표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작품은 연구의 대상으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목받지 못하 까닭으로는 작품 자체의 문제로서 주인공이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것도 장편에서 요구되는 삶의 총체적 면모를 보이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11) 김인환, 「인고의 미학, 별과 같이 살다/카인의 후에 해설」, 문학과지성사, 1985, 469쪽.

점, 해방기에 쓰여진 작품이면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산문예술로서의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에 접근되지 못한 점 등 과도 관련이 될 것이다.¹²⁾

그러나 단편작가로서 황순원이 장편을 시도함으로써 작가의 방향을 굳혀나가는 도정의 한 이정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해방 이전에 출발한 작가가 해방을 맞아 그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작품화하였는가 하는 정신적인 가치의 문제가 이 작품과 관련지어 논의될 수 있으리라는 점 등에서 일단 주목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이 작품은 장편으로 되어 있으며, 작중인물이 다양한 형태로 대결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또 작품내용으로 취급된 시간의 폭이 일제 말부터 해방기까지로 되어 있어 전반기의 정신사적 맥락을 포함할 수 있으리란 점에서도 일단 주목의 대상이다. 식민지시대의 잔재에 속한 수치감이라든지 해방의 환희를 소설의 양식적 특질과 관계없이 단편으로 쓴 작가들에 비한다면 장편의 맥락에서 해방을 수용하고자 한데 대한 의미부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편소설이 단순히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면 마땅히 그 내적 조건이 검토되어야 한다. 장편소설의 내적 조건이란 이른바 ‘대상의 전체성’을 목표로 하는 양식적 특징을 말한다. 장편소설은 ‘대상의 전체성’을 목표로 하는데 대상의 전체성이란 단순히 인간의 사회생활의 단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데 머물지 않는다. 환경세계의 다양한 국면의 특징과 아울러 그 세계가 취하고 있는 방향의 특성을 표시해 주는 관습, 풍습, 제도 따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별과 같이 살다』는 장편 양식의 내적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 인물의 성격과 관련해서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될 것이지만, 주인공 곶녀가 매우 단순하고 우직한 원형질적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세계와의 교섭을 상호대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세계를 수용하기만 하는 그런 성격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폐성을 드러내고, 그 결과

12) 우한용, 『한국현대소설구조연구』, 삼지원, 1990, 183쪽.

소설적 인물이 되기 어렵다. 그러한 인물은 본능의 세계에 함몰하거나 서사시적인 세계에서 신 혹은 운명을 따르는, 그래서 끝내는 성공하는 인물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화의 원리를 도출한 자료는 서구 리얼리즘 소설이고, 모든 소설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문학의 독자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거나와 그러한 규정을 한국문학에 적용할 경우, 장르적인 여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별과 같이 살다』의 인물 또한 일탈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양식과 장르의 두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2 작중인물의 성격화 방식

『별과 같이 살다』의 인물은 뿌리 뽑힌 계층의 꿈녀를 비롯하여 그의 친구들인 산옥, 주심 등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지주 계층인 김만장, 일제시대를 신분상승의 계기로 이용하여 새로이 부를 축적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한명인 등이 남성 주인공들로 등장한다. 그리고 여성 주인공들은 남성 주인공들의 피해자로 되어있는 게 또한 특색이다. 주인공들의 상호관계 뒤에는 일제라는 엄청난 힘이 조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주인공들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될 것이다.

또한 8·15해방의 비자율성(非自律性)에 대한 인식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성격의 대립에서 드러난다. 크게는 김만장과 한명인 그룹, 꿈녀와 산옥 등의 그룹이 대립되어 있고, 그 그룹 안에서 각각의 인물이 대립을 이룬다. 김만장과 한명인은 토착지주와 신흥지주란 점에서 대립되며, 꿈녀와 산옥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유무 혹은 그 심도에 있어서 대립적이다. 이들 대립은 네 그룹의 대립항목이 교차되고 있는 형국이다. 동질성을 가진 인물들도 내적으로는 대립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서 멜로드라마적인 극단적 대립이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인물들의 이러한 대립구조는 삶의 어느 단면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파악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인물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존재적 현실에의 강한 집착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곶녀의 경우 맹목적인 생명에 충실하며, 산옥의 경우도 다소 문제적 인물의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자기인식은 피상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김만장이나 한명인같은 인물도 소설의 중반까지만 의미를 지니는 인물로 되어 있고, 후반부로 가서는 구성적 대립성을 잃게 된다. 삶의 구체상인 풍속만 다소 드러나 있지 삶의 논리적 파악과 방향성의 모색으로서의 이념은 배제되어 있다. 이는 사물의 본질 추구에 집착하는 황순원 초기의 단편들에 배어 있는 ‘생명에의 외경(畏敬)’이 이 장편에도 그대로 연장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곶녀의 성격을 통해서 분석될 수 있는 점이다.

한편, 샘마을 땅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김만장은 토지를 수단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을 엮어 잡는다. 토지는 소작인들에게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 그가 일본 탄광으로 돈 벌러 간다는 곶녀의 아버지 곶이를 붙잡은 이유도 돈에 있는 것이지 식민지 본국에 가서 값없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안쓰러움 같은 것이 그 동기는 아니다. ‘지주의 수입이 마지기 푼수로 보아 제일 많은 것도 이 곶이한테서’이기 때문에 그를 붙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섭고 어려운 사람’으로 부각되는 이유도 ‘도와 줄 때는 도와주지만 계산 볼 것은 계산대로 보지 않고는 밤잠을 못자는 성미’ 때문인 것이다. 김만장이 샘마을에서 소작인 개똥이네 집에 머무르는 까닭도 과부가 된 개똥이 누이를 탐내서이며, 곶녀를 데려가는 것도 남보다 일을 배는 잘 추워 내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인물로 성격화되어 있다.

또 집안에 대한 자부심은 계층의식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가문에 대한 우월감과 철저하게 현실원칙에 입각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김만장은 지주계층의 한 전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윤리의식은 개인적인 욕망 성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명인은 신분상승을 위한 몸부림과 자신의 직업(점장)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신화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로 군림한다. 또 그가 군내 갑부가 된데 대한 이유로 복도깨비에게 돈을 꾸어 준 덕이라든지, 그의 어머니가 도깨비와 사귀어 낳은 아들이라든지 하는 소문을 조작하여 가지고 주민들의 심리에 두려운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그리고 그는 후한 인심을 가장하여 마을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한명인의 인심 후함은 노획한 계산이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지를 이용하여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사람들을 틀어쥐는데에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훼손된 삶의 양상이다. 즉, 복도깨비 이야기가 사람들마다 엇갈리는 점, 귀돌아버지 원혼 만났던 얘기에서 귀돌아버지를 만난 것은 명인 혼자라는 점, 소작인의 딸(산옥)을 군수에게 희생물로 보낸다는 비윤리성 등으로 그 허위성은 암시되어 있다. 이러한 계산을 기초로 한 자기신격화는 귀돌이와 산옥의 사랑을 가로막는 무덤의 유령으로 정신적 폐해를 조장한다. 무지와 결탁된 암흑의 조장이라고나 할 성질의 작폐인 것이다. 그것이 조작된 위장적 인심임을 알면서도 그 마성의 영역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작가는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명인의 계층의식은 신분상승을 위한 고투로 표현된다. 군수가 명인에게 허혼을 해 오자 명인은 거기에 응락하여 작은 딸을 보낸다. 군수는 군수대로 명인으로부터 돈을 울궈내기 위한 방책으로 전처와 이혼하고 정략적인 재취(再娶)를 한 것이다.

무어니무어니 해도 군수를 사위로 둔다는 것은 해롭지 않은 일이다. 군수라면 지난날의 원님이 아니야. 이 지난날의 원님격인 군수만 자기의 사위로 만들어 놓는 날이면 그야말로 자기의 앞을 막을 놈이라곤 조선놈으로 태어나선 없을 것이다.¹³⁾

이는 한명인의 음험한 저의다. 한명인의 신분상승의지는 금광으로 미쳐

13) 황순원, 『별과같이살다/카인의후예』(『황순원전집』6, 문학과학사, 1981), 86쪽. 이 후 본고에서 인용되는 황순원의 작품은 위의 전집에 따르며 말미에 텍스트의 쪽수만 밝히고자 한다.

다니던 김만장의 큰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을 위조해서 내놓은 땅을 사는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그가 땅을 사는 동기는 “농토 그것이 탐나서가 아니었다. 군내 갑부라 하지만 지체가 낮은 자기가 조상 때 벼슬을 지냈다는 김만장의 땅을 살 수 있다는 공지를 맛보고 싶었던 것이다.”(91쪽). 신분에 대한 열등의식은 김만장을 만나자 평교(平交)를 하자고 하면서, “먼저 자네라고 호칭해 부르는”데서 나타나고, 김만장은 “문득 어떤 모욕감을 느끼게”(92쪽)된다.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김만장은 대체로 지주이면서 기득권적인 계층 유지에 급급하고 한명인은 상승하는 신분을 이용하여 김만장에게 도전해 가는 것이며, 이 두 인물은 유사한 계층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갈등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인물들은 8·15해방을 맞은 이후에는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다. 남성 주인공들이 작품에서 사라짐으로써 인물의 대립적 성격은 약화된다.

곰녀와 산옥 같은 여성 인물을 통해 식민통치가 인간성을 황폐화시킨 면모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들 여성들은 상징이면서 검질긴 삶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해방 후의 갈등과 혼란과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인간 본질을 구현하는 <카인의 후예>의 오작녀 같은 인물과 맥이 닿는다. 식민통치의 마수에 희생당하는 인물은 곰녀를 위시한 산옥과 그의 친구들이다.

산옥은 곰녀에게 ‘얼마든지 음전하게만 뵈는’ 인물로 부각된다. 이는 곰녀가 산옥을 모델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해준다.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 ‘하루에 한번씩은 강물을 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산옥이’인데 그 강물을 쳐다보면서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강에 나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여 매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의식이 눈을 뜨도록 촉구하는 인물이다. 산옥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현실을 조망하고 있다. 산옥에 대한 곰녀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대목을 통해서도 감지된다.

곰녀는 산옥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기가 열두살까지 자라난 샘마을에

서 이 광우리아버지나 그의 여편네같은 사람을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어쩐지 이와 똑같은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일어남을 어찌지 못했다.(162쪽)

곰녀는 병이 나 누워 있으면서도 산옥을 생각한다. 이처럼 곰녀를 흡인하는 인물 산옥은 “치마는 들렀어도 남자 못지않게 기상이 좋다”(93쪽)고 한명인에게는 인식된다. 이러한 인물이 자살로 일생을 끝내는 것은 “옳은 길을 걷기에는 암만 캐도 안 맞는 몸”(148쪽)이라는 자의식 때문이다. 혼자 몸이 된 산옥이 해방을 맞아 갈 곳을 잃는다. 만주서 돌아오는 귀국 동포를 구호하는 ‘민호단’으로 친구 주심과 함께 들어가지만, 반목·질시·냉대 속에 지내야 하는 현실이다. 낮에는 행동을 감시받고 밤에는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 식민치하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었던 것처럼, 현실이 또 하나의 ‘가막소’같은 현실로 인식된다. 해방이란 것도 산옥에게는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방에 대한 시각이 단 일성을 벗어난다. 산옥은 “우리가 남을 동정한다는 게 주제넘은 것이라는 생각”(138쪽)에 이른다.

자신을 정리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급하다는 것을 깨달은 산옥의 이러한 의식은 삶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이를 두고 8·15해방의 소설적 수용이라고 한다면 다소 거칠은 파악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황순원이 추구한 세계가 논리의 세계나 초월의 세계가 아니며, 자신의 삶 그 안에서 해결을 요하는 내재적인 운명의 세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산옥의 자살은 해방의 정신사적 의미가 허무라는 데로 귀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주심에게는 귀국할 부모가 있고, 곰녀에게는 삶을 보장해 줄 하르빈이 있지만 산옥은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거기다가 거지가 되어 귀국해 가지고 서로 질시하면서 혈투는 귀환동포와 자신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데다가 그러한 현실은 무시된 채 강요하는 이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산옥의 자살원인이다.

이러한 현실은 자의식의 인물보다는 오히려 생리의 인물인 곰녀같은

인물에 의해 수용·극복이 가능해진다. 산옥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다소 뚜렷이 가지고 있다면 주인공 곰녀는 모든 것을 맹목으로 수용하는 검질긴 생명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것은 '원시적 생명력으로서의 민족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이름이 끊임없이 바뀌면서도 요지부동의 성격을 보인다는 것은 원시적 생명력의 지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곰녀는 땅밖에 팔 줄 모르는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땅밖에 팔 줄 모르, 마을에서들 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나이 아직 젊은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곰녀의 이름도 처음에는 몇 대째 외 아들 손으로 내려오는 터라 첫아들 못 본게 서운에서는 곰의 딸이라는 것과 후남이의 인물이 이쁘지 못하고 아버지를 닮았다는 데서 곰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16쪽)

단군신화의 웅녀(熊女)를 환기시키는 이 이름은 뒤에 아들이 없음으로 해서 무남독녀가 되며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가장적(家長的) 인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 곰녀는 지주 김만장의 집으로 들어가서는 삼월이란 이름으로, 술집 진주관에서는 유월이란 이름으로, 청루에서는 복실이란 이름으로, 하르빈과 살림을 날 때는 후꾸꼬란 이름으로 각각 달리 불린다. 그러나 작가는 항상 그녀를 곰녀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곰녀라는 이름이 오랜 고난과 인생유전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그녀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상징적 장치임을 말해준다. 이에 반해 곰녀의 다른 모든 이름은 대구에서 서울, 서울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곰녀의 삶 속에서 그녀의 순박함과 인고적 미덕을 위협하는 현실을 의미하게 된다. 이 이름들은 곰녀를 둘러싸고 있는 근대사회의 제반 풍경들을 함축하고 있다. 대구, 서울, 평양과 같은 도시는 샘마을이라는 곰녀의 고향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철저히 근대적인 곳이다. 이 낯선 곳을 유전하면서, 곰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본질이나 내적 요구를 거의 자각하지 못한 채 수난의 삶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도 곰녀는 자신의 타고난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부지런함과 인내, 남을 위하는 순박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이러한 꿈녀의 미덕은 그녀가 특히 인생살이의 최저한계인 사창가를 전전하면서 더 빛을 발한다. 꿈녀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며 다른 이름들은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과 함께 변화하는 현상이다. 인종과 본능적 성실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무지와 건강과 정직으로 표상된다. '묵종과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그려진 그의 태도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검질김이지만, 그 단순성이 어떤 결단을 내렸을 때에는 매우 단호한 것으로 전환된다.

이 당장 자기보다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녕 주심이 언니가 거들어 준다고 나서리라. 그것을 자기는 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162쪽)

꿈녀의 자발적 결단이 이렇게 단호한 것은 그의 단순한 성격 때문에 리얼리티를 드러내게 된다. 꿈녀의 결단이 망설임을 동반할 때 그것은 꿈녀에게 죄로 인식된다.

죄를 짓고라도 살아가는 도리밖에? 꿈녀는 가슴이 자꾸만 떨렸다. 그러다가 꿈녀는 깜짝 놀라고 만다. 이 떨리는 가슴 속으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바보, 바보하고, 그것은 산옥이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주심이 언니 목소리 같기도 했다. 그러나 기실은 산옥이의 목소리도 주심이 언니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꿈녀 자신의 가슴 속으로부터 속삭여진 소리였다. 이 소리가 다시 속삭이는 것이다. 주심이 언니한테로 가그라, 주심이 언니한테로 가그라.

잠시 꿈녀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서 있었다. 그러는 꿈녀의 해쓱해진 얼굴에 갑자기 화기가 내뿜히기 시작했다. 왜 자기는 여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바보, 바보! 이번에는 입밖에 내어 중얼거리건만 놀라지 않았다. 그저 아지 못할 어떤 바램으로 해 가슴만이 두근거릴 뿐이었다. 이 두근거리는 꿈녀의 가슴 속에서도 뭔가 강독의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 올랐다. (161쪽)

주변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질곡을 끈질기게 수용해 온 꿈녀의 결단에 '아지랑이'가 동반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겨울로 표상

되는 일제의 물리감과 해방-그것이 비록 '가막소'같은 현실이고 '빛 좋은 개살구'라 하더라도-이 자연의 리듬을 타 그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연결되면서 원형적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이 소설은 로맨스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설화성의 공간과 세계관

황순원의 작품들은 대체로 묘사가 거의 없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소설 서술방법으로 본다면 보여주기(showing)보다는 말하기(telling)의 측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앞에서 열거한 단편소설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작품은 대화까지도 별행을 잡지 않고 그대로 지문 속에 녹여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문체상의 특징은 '기록성'에 치중한 주제나 요소를 작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서 묘사가 거부되고 사물이나 인간의 본질 탐구로 나아가며, 운명의 문제에 연결되며, 그것을 작가 특유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생명외경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설명이 지나치게 관념적이다. 문제되는 것은 양식의 차이에 따라 문체 혹은 표현기법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검토하는 일이다.¹⁴⁾ 그리고 표현형식과 사상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도 요망된다.

해방 후 장편소설들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황순원 소설의 특징이지만, 에피소드의 의미연쇄로 소설이 짜여져 있다는 점이 문체특징과 연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에피소드들이 설화성을 띠는 점이 특징적이다. 모두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 제1장에서 한명인이 자신을 신화화시키는 방식이 에피소드로 처리되어 있으며, 제3장의 진상가는 비지(인생의 무상한 변전을 상징)이야기나, 콩쥐팥쥐 이야기, 제7장의 빨래터에서 산옥이 들려주는 한명인이 군수와 사돈을 맺고 김만장의 땅을 사는

14) 우한용, 「소설언어의 연구방법론고」, 『국어국문학』 87호, 1982 참조.

이야기, 광우리 아버지 이야기, 제10장의 자살하려는 딸을 물에 처박다가 소나기를 피해 도망치는 이야기, 제11장의 만주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이 설화성을 띤 에피소드들이다.

이러한 에피소드 중 제10장의 에피소드 말고는 모두 후퇴적 모티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진적 모티프나 후퇴적 모티프를 이용할 때의 효과는 에피소드들에 상징적 의미 혹은 주제적 의미를 쉽게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건의 진행 가운데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에피소드는 그 사건이 완결되었을 때라야 의미가 드러난다. 그러나 후퇴적 모티프의 에피소드는 현재적인 사건에 의미부여 작용을 해줌으로써 이야기의 부분적 완결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쉽게 드러난다.

문학의 표현방식이 개인적인 수사기교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 것은 작품이 단순히 개인적 체험의 구체화나 의사 표명의 유용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품은 ‘집단의식의 표현’이란 측면, 즉 초개인적 주체를 반드시 내포하며, 그 의식은 현실적 의식과 ‘예외적인 개체성 속에서 일관되고 특출한 표현’으로 ‘가능한 의식의 최대치’에 접근한다. 이를 세계관이라는 용어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표현형식의 문체는 『별과 같이 살다』의 경우 다소 비약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대목을 바탕으로 분석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개비의 장작이나마 다 소중히 나르자. 자기가 몇 번을 위아래 겨리를 오르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당장 자기보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녕 주심이 언니가 거들어 준다고 나서리라. 그것을 자기는 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꿈녀는 혼자 속으로 증얼거렸다.(162쪽)

바보, 바보! 이번에는 입 밖에 내어 증얼거리건만 놀라지 않았다. 그저 아직 못할 어떤 바깥으로 해 가슴만이 두근거릴 뿐이었다. 이 두근거리는 꿈녀의 가슴 속에서도 뭔가 강둑의 아지랑이같은 것이 피어 올랐다.(161쪽)

앞의 것은 소설의 말미에서 인용한 것이고, 뒤의 것은 곰녀가 현신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가슴 두근거리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 인용문을 통해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작품이 1)자족적 폐쇄구조의 표현형식이란 점, 2) 표현형식이 상승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자족적 폐쇄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완결성을 뜻하고, 달리 말하면 심리내적인 의욕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상승구조는 어미 '나르자'로 표현된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고, 두근거리는 가슴 속의 폐쇄적 진동이 아지랑이 같은 것으로 피어오름의 문체구조를 뜻한다. 이러한 예에서 어떠한 세계관을 추출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세계관과 표현형식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세계관은 사회적 현상이며, 위대한 철학적·예술적 작품은 이 세계관에 대한 일관적이고 적합한 표현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은 사회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표현인데, 왜냐하면 그 내용은 집단, 일반적으로 사회계급의 가능한 의식의 최대치에 의해 결정되고 형식은 내용—작가나 사가가 그에 대한 적합한 표현을 찾아내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¹⁵⁾

인용한 대목은 세계관은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 일관성은 가능한 의식의 최대치를 표현한다는 것, 그것은 사회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이라는 것, 내용이 형식을 결정한다는 것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인용문 중 작가의 세계관과 관련시킬 수 있는 황순원 소설의 특징은 이상주의적 경향이라 할 수 있고, '사회계급의 가능한 의식의 최대치'로서는 해방의 혼란을 극복하고 삶을 고양시키겠다는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순원이 설화적 표현형식을 통해 추구한 것이 본질의 세계라면, 위 인용문에서 개인내적인 폐쇄구조적인 표현형식은 그러한 세계관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력의 끈질긴 원시성을 민족적 의식과 등치시키는 세계관이 바로 그것이다. 곰녀가 외적 상황을 논리화시키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비롯되는 자의식을 갖지 않고 견디어

15) 골드만, 앞의 책, 141쪽.

내는 원시적 건강성의 표현양식은 폐쇄적인 구조로 드러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족의식을 이러한 방식으로 파악한 내용이 그러한 형식을 배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운명의 세계이고 생명에 대한 외경으로 표현되는 세계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학적 내용에 해당한다. 결국 작가 황순원은 그 내성적 성향과 오랜 절제력으로 시를 통해서는 다른 시인과 같은 해방의 환희를 노래할 수 없었지만 해방을 통해 보다 실현가능한 것으로 인식된 민족공동체의 소망을 곰녀의 헌신적 행위를 통해 형상화한 셈이다.

2.4. 현실을 감싸 안은 상징의 세계

『별과 같이 살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일종의 일대기라는 점이다. 이 작품은 여주인공 곰녀가 스무살이 될 때까지 겪는 사연들을 12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이고 연대기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곰녀의 행적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곰녀라는 한 소작녀의 기구한 운명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주목을 요하는 점은 소작인인 곰녀의 아버지가 지주 김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주탄광으로 돈 벌러 가서 죽음을 당하는 대목에서부터, 해방을 맞아 곰녀가 만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호하는 단체인 민호단에 가입할 때까지에 이르는 작가의 역사 의식과 현실응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은 일제말기부터 해방직 후에 이르는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면밀한 사적기록으로 나타난다. 작품의 각 장은 각각의 역사적 사실에 바탕하고 또 이를 구체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장: 지주-소작관계, 간도 이민, 탄광 돈벌이
- 3-4장: 금광 붐, 친일지주의 득세, 토지의 집중 현상
- 5-9장: 중일전쟁, 이북의 병참기지화, 창씨개명, 태평양전쟁
- 10-12장: 방공연습, 해방, 귀환동포, 적산처리, 사회주의세력 등장

위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작가는 곰녀의 일대기라는 형식 속에서

1920년대부터 해방직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주요한 역사적 계기들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무척이나 집요하며 예리하다는 사실인데, 이는 특히 3-4장과 5-9장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먼저 3-4장을 보자. 샘마을의 전통적인 대지주 김만장의 큰 아들이 금광에 미쳐 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팔아버린다. 그런데 이를 산 것은 군수를 사위로 둔 신흥지주 한명인이다. 그는 원래 점장이었지만 고리대를 놓아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는 김만장의 토지까지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이후 7장에서 향나뭇골 아이인 산옥이의 회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듯 한명인은 친일관료인 사위를 앞세워 김만장을 협박함으로써 욕망을 달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지대울의 하락과 토지의 집중현상이 일반화된 당시의 사정”¹⁶⁾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자 동시에 전통적인 봉건적 지주에 대해 고리대와 친일관료와의 결탁을 통해 부상한 신흥지주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당시 지배층의 구조적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1920년대를 통해 진행되는 일제하의 이러한 역동적 과정을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 속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당대의 객관적인 현실을 작품내적으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주의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면, 『별과 같이 살다』의 면밀한 현실 주시는 이 작품을 사실주의적인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다.

5-9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곰녀가 대구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인신매매범의 꾀임에 빠져드는 과정은 3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한 조선의 부분적인 산업화 과정을 의식하지 않고는 그려내기 힘든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와 같은 맥락에서 평양의 사창가 풍경에 대한 묘사는 아주 인상적이다.

싸움은 그믐께가 되면 한층 잦고 심해지곤 했다. 이때는 거의 밤마다 이 아랫거리에 나타나는 사내들은 물론, 이런 때만 보이는 사내도 많이 모여들었

16) 김인환, 「인고의 미학」, 『별과 같이 살다』의 해설, 문학과 지성사, 1985, 470쪽.

다. 이런 때만 뵈는 사내들은 대개가 무슨 작업복 같은 걸 입었다든가 몸에서 무슨 기계기를 냄새를 풍기는 사내요 사내애들이었다. 이런 사내들로 해서 거기에는 여태까지보다 더 지독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마치 그것은 그들이 이런 데라도 와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벌여놓은 싸움인 듯 했다.(98쪽)

사창가는 가장 싸게 성적 상품을 매매하는 곳이며 따라서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그믐께만 되면 뵈는 사내들이란 노동자들이다. 중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이북지방이 일본의 병참기지화 정책에 의해 부분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노동자들이 도시생활의 가장 하층적인 부분을 형성하면서 월급날 즈음이 되면 한 달 동안의 피로함을 씻으려 사창가 부근으로 몰려들어 잦은 싸움을 벌인다고 묘사하고 있다. 평양으로 간 고퍼녀의 낯설은 눈을 통해 변모하는 30년대 조선의 가장 병적인 부분을 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통상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취향의 작가로 알려진 황순원을 사실주의적 시선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이 이 작품에서 단지 배경으로만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이러한 배경을 처리하는 작가의 수법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풍속의 차원과도 관련시킬 필요를 느낀다. 『별과 같이 살다』는 일제식민지 침탈로 인한 풍속의 황폐화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분석해 본 바이지만 무식한 소작농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을 신화화하는 한명인, 소작논의 딸을 엿색한 군수에게 희생물로 넘기는 그의 행위, 소작논의 딸을 데려다가 부자가 윤간하여 마침내는 청루로 몰아넣고 마는 김만장 등은 풍속의 윤리적 측면을 황폐화시킨 예가 된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청루로 모여드는 것도 풍속의 황폐화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싸움질하는 풍속이다. “그들이 이런 데(사창가)라도 와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벌여 놓는 싸움”(74쪽)이다. 그것은 심성의 황폐화로 인한

싸움인 것이고, 인간의 결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일본 탄광으로 돈 벌러 갔다가 죽거나 불구가 됨으로써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농민들을 식민지 노무자로 전락시키는 과정이다.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이민을 가는 것은 땅에 대한 애착이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또한 인신매매가 자행되며, 창녀들이 낳은 애까지 그 어미와 함께 팔아먹는 것 등은 인간관계의 훼손이 극단화된 양상이다. 이러한 풍속의 황폐화를 통하여 식민지적 삶의 조건이 어떠했으며, 행복의 조건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었는가, 또 역사의 진보가 가능했는가 하는 점을 소설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행복의 조건 같은 것도 염도 내지 못할 정도로 파괴된 풍속 그 속에서 견디어 온 사람들에게 해방의 의미는 풍속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삶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과 같이 살다』는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다만 혼란의 와중 속에서도 검질긴 원시적 생명력으로 자발적인 결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서 끝나고 있다. 소설이 문제해결의 양식이 아니고 문제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을 문제 삼는 양식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가의 세계관의 문제, 주인공의 성격이 자기폐쇄적인 인종과 부지런함의 맹목성을 띠고 있다는 점, 또 다른 인물과의 대립적 구성을 이루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왜 거기서 머물러야 하는가 하는 점은 자명해진다. 작가는 풍속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상의 명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문학적 현실인식의 한 방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 외에도 황순원은 사실주의적 요소를 상징주의적 세계 안에서 결합해 내기 위한 장치로서 여러 곳에 상징적 의미를 간직한 장면묘사를 배치하고 있다. 지주 김만장이 한명인에게 땅을 팔아넘기고 집에 돌아와 보게 되는 어린 시절의 환영은 그 한 예가 되겠지만 10장에서 해방을 앞두고 산옥이가 목격하는 이상한 장면은 그 전형적인 경우가 된다.

지금 막 수백 길의 뽕오얀 먼지 바람이 선교리 한복판을 남에서 북으로

휩쓸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이 바람이 선교리 북단을 지나 채 꼬리를 감추기 전에 남단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 북쪽으로 휩쓰는 것이었다.----그리고 저어기 휩쓰는 먼지바람은 그제 먼지가 아닌 듯이만 느껴졌다. 무슨 연기이거나 안개가 아니면 무슨 꽃가루 같은 거로만 느껴졌다. 단지 강을 하나 새에 두고 이런 조화가 일어난다니 ----

그러다가 생각난 듯이 고개를 거두던 산옥이는 또 뜻하지 않았던 대동강 물이 이상함에 다시 놀랐다. 유난히 파아란 물이었다. 가을철에는 아무리 여쁜 물이라도 이처럼 파아랄 수는 없었다. 이런 강물은 또 산옥이가 여태 이 대동강 물에서 대해 보지 못한 강물이었다.(160-161쪽)

이와 같은 상징적 장면의 지속적인 삽입이 본질상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하는 서사적 연속성을 끊어놓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별과 함께 살다』의 단편소설적 편향은 충분히 이해될만한 것이다. 사실에 대해서 상징이 우위를 점할 때, 그 작품은 본질상 시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작품은 단편소설이든 장편소설이든 서사구조(narrative structure)의 현저한 약화를 통해 목적이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가가 이때 이러한 미학적 효과를 얼마나 의식적으로 추구하는가 이거나, 작가의 주제의식이 이러한 형식으로 썩어질만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에 있다.

3. 맺음말

이 글은 해방기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사회인식 및 작가의식의 한 양상을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쓰여 졌다. 특히 해방기 변동기 사회상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인물의 특성과 형상화 과정에 중점을 두어 분석했다. 즉, 해방직후 변동기 사회에 대처하는 인물들의 대응방식을 통해 해방기 현실의 재 모순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별과 함께 살다』는 해방기 사회상을 작가가 어떻게 서사화하였는지

가능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해방 이전에 출발한 작가가 해방을 맞아 그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작품화하였는가 하는 정신사적인 가치의 문제가 이 작품과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었던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작중인물이 다양한 형태로 대결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작품 내용으로 취급된 시간의 폭이 일제 말부터 해방까지로 되어 있어 전환기의 정신사적 맥락을 포함할 수 있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초기소설이 가지고 있었던 낭만주의 및 상징주의적 경향, 그리고 현실추구적 경향 혹은 역사적 관심의 두 축이 상당히 긴장을 이루면서 공존하는 있다는 점에서 문제성을 지닌다.

작품 분석을 통해 본 연구자는 그의 소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문학 예술이라는 특수성과 사회현실의 산물이라는 보편성을 겸비하려는 문학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려 한 문학적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해방기 황순원 장편소설의 서사적 특성과 나아가 황순원 문학의 본령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이 글은 해방기 동시대 여러 작가들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한 황순원 소설의 변별적 특징을 추출해내지 못한 한계도 있다. 또한 논문의 체제상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 전후에 이르는 기간에 창작된 그의 첫 장편소설 『별과 함께 살다』를 다루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 글은 논의의 대상을 보다 확대해서 분석해야 할 과제를 남겨둔 상태다. 이는 해방기 황순원의 소설이 그의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거니와 나아가 해방기 문학에서 그의 문학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다 분명하게 조망해 보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후일의 과제로 미룬다.

- 핵심어: 해방기, 설화성, 에피소드, 섬세한 독서, 서사구조, 「목넘이 마을의 개」, 「별과 같이 살다」.

<참고문헌>

- 권영민, 「황순원의 문체, 그 소설적 미학」,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 지성사, 1985.
-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 연구』, 일지사, 1991.
- 김만수, 「황순원 초기 장편소설 연구」,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 김상태, 「작가연구의 필요성과 공적 서술을 통한 연구의 한 방향」, 『이화여대 학보』 제9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 김성렬, 「광복 직후의 좌우대립기의 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9.
- 김영화, 『황순원의 단편소설Ⅱ』, 『논문집』 제21집, 제주대 인문사회과학편, 1985.
-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 박진, 「황순원 소설의 서정적 구조」,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서경석, 「미군정기 소설의 현실인식」, 《한국학보》 54집, 일지사, 1989, 봄호.
- 서석준, 『현대 소설의 아비상실』, 시학사, 1992.
- 서준섭, 「밥의 시학」, 『감각의 뒤편』, 문학과 지성사, 1995.
- 신동욱, 「황순원 소설에 있어서의 한국적 삶 인식 연구」, 『동양학』 16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6.
- 송남현, 『해방 3년사』, 까치, 1985.
- 우한용, 『한국 현대소설 구조 연구』, 삼지윈, 1990.
- 윤홍로, 「해방기 소설 연구」, 『동양학』 제23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3.
- 이동하, 「현대소설의 정신사적 연구」, 일지사, 1989.
- 이우용, 「해방직후 소설의 인간상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주형, 「해방직후 소설에 나타난 민족현실의 인식」, 『국어교육』 제20집, 1988.
- 임진영, 「황순원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장현숙, 「황순원 문학 연구」, 푸른사상, 2005.
- 전홍남, 『해방기 소설의 시대정신』, 국학자료원, 1999.
- 정과리, 「현실의 구조화」, 『존재의 변증법』, 참빛출판사, 1989.

- 정호웅, 「해방공간의 소설과 지식인」, 『한국학보』 제54집, 1989, 봄호.
- 조남현, 「해방직후 소설에 나타난 선택적 행위」,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 진덕규,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5.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 허명숙, 「황순원 소설의 이미지 분석을 통한 동일성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7.
- 현길언, 「황순원소설에 나타난 ‘집’과 ‘토지’의 문제」, 『한국학논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 홍성호, 『문학사회학, 골드만과 그 이후』, 문학과 지성사, 1995.
- 홍정선, 「이야기의 소설화와 소설의 이야기화」,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 지성사, 1985.
- 황한식, 「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 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5.
- Cumings, Bruce.,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 Goldmann, L., 조경숙 옮김,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82.
- Howe, I., Politics and the Novel, 김재성 역, 『소설의 정치학』, 화다, 1983.
- Zima, P. V., Romanund Idelogie, 서영상·김창주 역, 『소설과 이데올로기』, 문예출판사, 1996.

<Abstract>

A study on Hwang Sun-won's novels in the liberation period(II)

- Focused on [living with stars] -

Jeon Heung-nam · So Heoung-soo

This paper written for the purpose to examine one aspect of social recognition and the author's consciousness appeared in his novels right after the liberation. Therefore, I mainly analyzed a novel [living with stars]. I examined how he embodied the post-liberation changing societ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gures, and the process of embodiment.

On the other hand, I took notice that [Living with stars] is a very important novel to see how the author described the post-liberation social circumstances. It means a lot at the point that the problem about a mental virtue was discussed related to this novel. Especially, this novel has a critical side because the romantic and symbolistic tendency, which his initial novels had, and the historical concern are coexisting on considerable tension. Thus, I thought, through detailed analysis about this novel, I could learn more about the descriptive features of his novels in the liberation period, and further, the original features of his literary works. I also undoubtedly examined the limit of this novel, and why it wasn't unnoticed to most people.

However, this paper has a limit that the distinct features of his works, compared to other authors in that period, are not mentioned. Therefore, this treatise has one task to analyze other works further. And I will defer this work till a later day.

- Key Word: the age of liberation, episode, close reading, narrative structure, [The dog in the town 'Mokneomee'], [living with stars]